

AUGUST 2021 VOL.634

hyangjang



AMOREPACIFIC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8월의 필수템

SPECIAL 블애프터 선케어의 모든 것

HEALTH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



- 02 NEWS
8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대담한 비비드 메이크업
- 08 SPECIAL
애프터 선크어의 모든 것
- 16 MAKEUP
향수와 메이크업, 매칭 게임
- 22 PRODUCT
8월의 필수템
- 28 MAKEUP PLAY
선글라스 타입별 메이크업
- 32 PRODUCT
헤라
- 34 PRODUCT
헤라
- 36 PRODUCT
바이탈뷰티
- 38 PRODUCT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 42 INGREDIENT
피부에 좋은 녹차
- 44 HEALTH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
- 46 ICON
8월의 인물 인터뷰
- 50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품평 리뷰
- 52 PLACE
디저트 맛집
- 54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56 EDITOR'S PICK
8월의 강추템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4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1년 8월 1일
 발행 통권 634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컨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primera

Free & Free

Specialty
Green-Lac Barrier™, pH4.5

Key Ingredients
Lactobacillus Ferment Lysate

Benefit
Protect Intimate Area Skin Barrier

200 mL | 6.7 fl. oz.

primera

HYANGJANG JOURNAL

MICROSHORTS: 가볍고 편하며 시원한 옷차림이 최선인 시기. 절정에 다다른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트렌드는 마이크로소츠 룩이다.

editor LEE MI KYUNG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바야흐로 쇼츠의 계절! 울어름에는 특히 옷차림에 더욱 과감해도 좋을 듯하다. 길이와 소재에 따라 분위기가 천차만별인 쇼츠, 그중에서도 수영복을 연상시키는 쇼츠까지 누가 더 짧게 만드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극단적으로 길이가 짧은 마이크로쇼츠가 2021 S/S 시즌 대세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련한 휴양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디올부터 언밸런스한 아이템과 다채롭고 세련된 조합을 보여준 이자벨 마랑, 레트로 무드를 한껏 뽐낸 에트로까지 마이크로쇼츠의 활약은 그야말로 컬렉션을 망라해 이어졌다.

아찔하게 짧은 마이크로쇼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의 향연 덕분에 취향대로 골라 입을 재미도 쏠쏠하다. 간편하고 시원한 아웃핏이 매력적인 쇼츠는 데님부터 니트까지 소재에 따라 분위기 또한 천변만화한다. 디올이 선보인 데님 쇼츠는 뜨거운 여름 가장 빛을 발하며, 펜디의 니트 소재는 휴양지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해 모던하고 세련된 비치 룩으로 더할 나위 없다. 쇼츠 밑단을 롤업한 에트르처럼 중간 길이의 경쾌한 자메이카 쇼츠는 이름에 걸맞은 여유로운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활용도 만점이다.

길이가 짧다고 해서 비치 룩만 연상한다면 오산! 포멀한 룩을 연출한 컬렉션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길. 비비안 후, 베르수스, 이자벨 마랑 등은 카리스마 넘치는 올 블랙 스타일로 강렬한 다운타운 시크 룩을 완성했으며, 마스코 람발디, 베르사체, 돌체 앤 가버나 등은 재킷과 매치해 세련되고 트렌디한 서머 비즈니스 룩으로 재탄생시켰다.

알베르타 페레티, 에트로, 이자벨 마랑, 스포트막스 등의 컬렉션처럼 가벼운 소재의 활명한 셔츠나 풍성한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마이크로쇼츠를 부담 없이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 여름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과감한 옷차림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므로 셔츠 허리 스트랩을 적당히 풀거나 선드레스 안에 브라톱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루마린이나 펜디, 에트로, 발맹의 모델들처럼 과감하게 트임을 넣은 롱스커트나 레이스 스커트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더운 여름이니만큼 여기에 메이크업은 최소한만 하는 것이 좋다. 번들거리지 않게 잡아줄 가벼운 피부 메이크업과 양 볼에 생기를 더해줄 블러셔,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줄 코랄 컬러 게일 틴티드 립밤이면 자연스러운 쇼츠 룩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LD**





스타일리시하게 즐기는 홈메이드 아이스크피

뜨거운 여름, 집에서 쉽고 편하게 콜드 브루와 핫 브루를 즐길 수 있는 브레빌의 전자동 브루워는 색다른 아이스크피를 찾는 이들에게 주목할 만하다. 수준 높은 홈메이드 콜드 브루 이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 드립 커피를 버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한편, 네스프레소가 키아라 페라니와 손잡고 선보이는 '버추오 머그'와 '노마드 트래블 머그'는 키아라 페라니의 아이코닉한 원크를 형상화한 패턴에 각각 강화유리와 온도 유지에 효과적인 이중 스테인리스로 된 리미티드 제품으로 라이트 핑크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 또한 시선을 끈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두루 갖춰 스타일리시한 커피 타임을 선사한다.

문의 브레빌(02-3452-2127), 네스프레소(www.nespresso.com/080-734-1111)

세련된 방식의 미리보기

패션 하우스 콜로에가 브랜드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시각적 이미지로 예고했다. 조 게트너의 이미지와 피터 마일스의 아트 디렉션으로 선보이는 연속된 이미지 시리즈다. 야생 세계와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세계 사이의 근본적 연결 고리를 탐구해 파격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한 것으로, 주름진 곰팡이부터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식물 등 묘하게 추상적이고 놀랍도록 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콜로에가 표방하는 새로운 지향점에 영감을 준 원재료들이다. 최근 합류한 디렉터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선보일 생명의 힘과 순수한 상태의 아름다움, 그 근원으로 이끌어줄 콜로에의 다음 장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문의 02-3479-6071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웬웨어

이제 수영복도 친환경을 생각하는 시대다. 데이즈데이즈가 선보이는 뉴 컬렉션 '섬머 피크닉'은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으로 만든 스웬웨어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즐기는 여름날의 소풍처럼 밝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라이트 핑크, 라이트 그린, 아쿠아 블루 등을 킷 컬러로 잔잔한 플라워나 체크 패턴 등으로 선한 레트로 무드를 만끽할 수 있다. 수영복 위에 덧입을 수 있는 원피스, 랩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등 리조트 웨어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의 070-7711-4420



상쾌하고 편안한 여름을 위한 프리메라의 솔루션

블래 지수가 폭등하는 여름을 상쾌하게, 그리고 촉촉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프리메라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한다. 먼저 투명한 패키지로 변신해 청량감을 더한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젤은 민감하고 연약한 여성의 시크릿 존을 부드럽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성 청결제로 연약한 Y존 피부를 보호 세정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여성 청결제로 여름철 민감한 부위의 건강을 지켜준다. 프리메라를 대표하는 제품인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딩 젤 크림은 산뜻한 젤 텍스처에 크림의 풍부한 보습감을 담아, 가볍게 발리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도 피부속 깊이 편안한 수분감을 전달해주는 수분 진정 크림이다. 무더운 여름 시크릿 존의 냄새나 땀, 짝짝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젤을, 같은 번들거리는 데속은 당기고 건조한 피부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알파인 베리 워터리 수딩 젤 크림을 강추한다.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동시대의 문화를 담은 페이퍼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발간한 <아크네 페이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짧지만 빼어난 결과물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패션은 일부일 뿐 사진, 예술, 문학, 저널리즘을 망라해 시대를 초월하는 테마를 다루며 문화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했다. 이 <아크네 페이퍼>가 부활했다. 그간의 훌륭한 작업물을 기념하며 만든 이번 특대호에는 전설적인 사진작가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수 작가들의 작품을 실었다. 또한 사라 모위, 빈스 알레티, 로빈 뮌어가 쓴 에세이들을 수록했다.

문의 아크네 스튜디오(02-542-2290)



미스터리 아티스트의 내면 들여다보기

몰래 건물 외벽에 그래피티를 남기거나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걸어두는 등 파격적인 기행으로 유명한 작가, 영국의 얼굴 없는 아티스트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다룬 전시, <아트 오브 뱅크시(The Art of Banksy)>가 7월 30일부터 더서울라이움에서 개최된다.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 의식으로 주목받는 그는 소더비 경매 직후 원격으로 그림을 파쇄하는 퍼포먼스로 더욱 유명해졌다. '풍선 든 소녀', '꽃 던지기' 등 대표적인 벽화, 사진, 조각을 비롯해 판화 등 작품 1백30여 점과 비디오 다큐멘터리로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문의 070-4633-6887

editor LEE MI KYUNG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
3g,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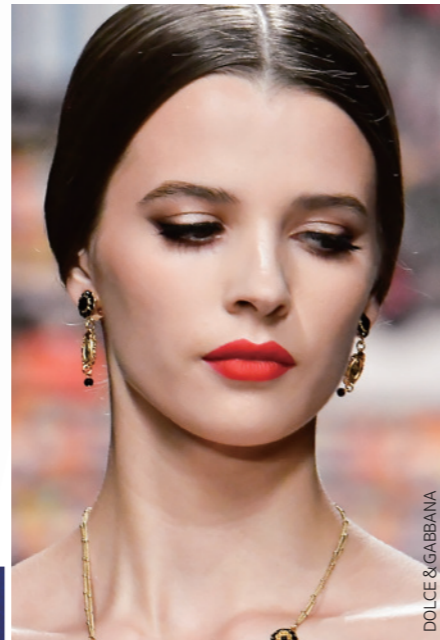


더 자유롭게 대담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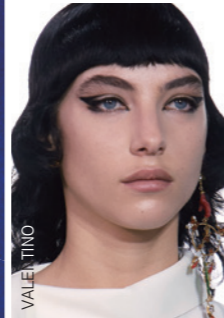
볼드한 아이 메이크업, 과감한 비비드 컬러로 서머 룩에
반전 매력을 더해주는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메이크업을 만나다.



VERSACE



DOLCE & GABBANA



VALENTINO



DIOR



HERA
EYE DESIGNER PE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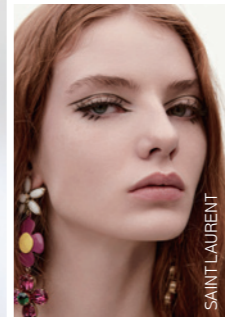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0.35g,
2만5천원.



DIOR



DANIELA GREGIS



SAINT LAURENT

2021 S/S 시즌에는 유난히 눈매를 깊고 강렬하게 강조한 메이크업이 많이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볼드한 블랙 아이 메이크업이 눈에 띈다. 단순히 스모키 아이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블랙 아이라이너로 굵게 그리거나 아이섀도를 진하게 칠하는 등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공통분모는 검은색을 넓은 범위에 걸쳐 진하게 칠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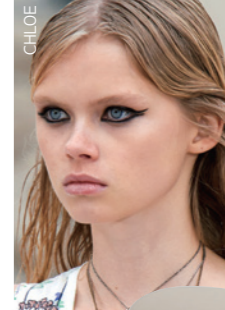
스모키 아이의 진수를 보여준 브랜드는 워니 워니 해도 사넬이다. 눈두덩이를 매트한 블랙 컬러로 채운 모델들이 화이트, 핑크 등 화사하고 밝은 색감의 트위드 재킷과 여름 원피스를 입고 시크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블랙과 그레이 컬러 아이섀도를 톤온톤으로 바르면 사넬의 모델들처럼 매트한 블랙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라인은 그리지 않거나 아주 얇게 그리고 아이섀도로 음영을 살리면 된다. 눈두덩이에 그레이 아이섀도를 넓게 펴 바른 뒤 블랙 아이섀도를 좁은 범위에 덧바르고, 경계를 부드럽게 퍼뜨리면 한 가지 색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세련된 눈매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돌체 앤 가바나는 아이라인을 강조하고 아이섀도도 스모키하게 연출한 케이스. 끌로에와 디올 쇼에 등장한 모델들도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고 눈 아래 점막까지 블랙으로 꽉 채운 컷아이를 연출해 아이섀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섀도를 사용한 사넬 모델들보다 면적은 더 좁지만 보다 강렬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눈 아래 부분까지 꽉 채워 고스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든다.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MIN YOUNG(제훈)

BALMAIN

에르메스나 발맹, 막스마라 쇼에 오른 모델들의 붉은 입술에서 보듯 립 메이크업도 과감하고 볼드하다. 입술 선을 뚜렷하게 살려 바르고, 입술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틴트 느낌이 아니라 입술을 꽉 채우는 방식이다. 베르사체와 돌체 앤 가바나처럼 입술 두께와 상관없이 입술 모양과 입술 산을 뚜렷하게 하트 라인으로 살려도 매력적이다.

레드 립 이외에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컬러도 주목할 만하다. 차가운 블루 아이섀도에 푸크시아 핑크 립을 매치한 톰 포드 쇼의 메이크업은 비비드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한 컬러도 의외로 레드, 블루, 옐로가 눈에 띈다. 블루마린 쇼에서는 붉고 선명한 푸크시아 핑크를 눈가와 광대뼈 위쪽을 이어 넓은 범위에 스머징 했고, 살바토레 페라가모 쇼에서는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위로 솟은 아이라인을 연출했다. 다니엘라 그레지스 쇼에서는 눈과 입술에 노란색을 발라 화제를 모았다. 보라 악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입술에만 실험적인 컬러를 바르고 투명한 마스크를 써 시선을 끌었다. 과감한 컬러를 사용해 볼드한 메이크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대범한 터치. 애매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거침없이 과감하고 쿨하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건 당연한 자신감과 애티튜드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자. **LD**



CHLOE



SALVATORE FERRAGAMO

설화수
퍼펙팅 쿠션
SPF50+/
PA+++,
15gX2,
7만5천원.





태양이 지나고 난 뒤

뜨거운 여름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피부에 상흔을 남긴 채 떠나가고 있다. 이 흔적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애프터 선케어에 돌입해야 한다.

photographer KIM SUN HYE(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낮의 흔적 환하게 지우기

한여름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두껍게 자주 발라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 분명 피부를 보호하는 고마운 장벽 역할을 해주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잘 밀착할수록 클렌징은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지속력이 탁월한 워터프루프 기능의 제품을 발랐다면 더욱 꼼꼼한 클렌징이 필수.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가 먼지나 피지와 섞인 채 잘 지워지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요한 유분까지 없애면 피부 표면이 건조해져 다음 날 피지 분비가 더욱 왕성할 수 있으므로 자주 세안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만큼 클렌저 선택이 중요한데, 피부가 이미 자외선에 자극받은 상태이므로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문 질러도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골라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클렌징을 해야 한다.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화이트닝 혹은 브라이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라 헬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듀오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셀룰로오스 비드 성분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없애고 헬라솔브™ 성분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듀오.
200ml×2ea, 5만7천원.



#2 메마른 피부에 물 주기

전문가들이 애프터 선키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 바로 보습이다. 높은 기온과 뜨거운 자외선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속은 건조해지는데, 표면이 뜨겁고 피지로 번들거려 스킨케어에 흡수하기 쉽기 때문이다. 에어컨 바람도 피부를 메마르게 하는 데 일조한다. 건조한 피부는 재생 능력이 떨어져 자외선에 따른 손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노화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보습이 시급하다. 스킨케어 제품을 보습 라인으로 바꾸고 낮에는 미스트를 수시로 뿌리는 것이 좋는데, 진정이나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 금상첨화다. 미스트나 토너에 적신 화장솜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세안한 뒤 얼굴에 올려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단, 지나치게 차가우면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냉동실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컴포팅 스킨 미스트
보습막으로 피부를 감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미스트.
120ml, 2만5천원.

#3 주름에 취약한 눈가 관리하기

피부가 얇고 피지샘이 없는 눈가는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매년 늦어지면 자외선에 노출돼 늘어난 주름 때문에, 혹은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으로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되어 아침마다 퉁퉁 붓는 통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 게다가 매일 쓰는 마스크에서 반사되는 자외선까지 더해졌으니,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앞으로 눈가 관리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각도의 안티에이징 효능을 지닌 아이크림을 약지에 덜어 부드럽게 바른 뒤 눈가, 관자놀이, 귀 뒤에서 목까지 림프관을 따라 마사지하면 순환에 도움이 된다. 눈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은 금물. 혈액 순환을 방해해 증상이 악화하기 십상이다.

1.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바르면 순간적으로 눈가의 주름을 감춰줄 뿐 아니라, 피부의 힘을 기르고 주름을 완화해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준다. 25ml, 27만원.

#4 늘어난 모공 조이기

기온이 1℃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해 모공이 넓어질 위험이 커진다. 강렬한 자외선으로 인해 콜라겐 합성이 억제되면 노화로 피부가 처지고 덩달아 모공이 커보일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씻지 않으면 땀이 피지나 노폐물과 엉켜 모공이 넓어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름은 모공에 최악의 시기인 셈. 따라서 모공 케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낮에는 피부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땀이 나면 깨끗한 티슈로 살짝 눌러 닦아내자. 일주일에 1~2회 딥 클렌징을 해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와 불필요한 각질을 없애고, 모공을 조이거나 탄력을 높이는 기초 화장품을 꾸준히 쓰면 한결 도움이 된다.

2. 아이오메이시스 비타민 씨30
순수 비타민 C를 30% 함유한 고효량 안티에이징 앰플로, 탄력 있고 팽팽한 피부로 되돌려준다. 23g, 8만원.



#5 얼룩덜룩한 주근깨 지우기

잡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스틱형 제품을 가지고 다니며 광대뼈나 콧잔등에 수시로 덧바르는 것. 낮에 뜨거운 자외선을 오래 쬐 경우 평소 잡티가 잘 생기는 편이라면 귀가하자마자 잡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농도 높은 스팟 케어 제품은 자칫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부를 먼저 진정시킨 뒤 스페셜 케어를 하거나 에센스나 크림 타입 제품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긴 휴가 기간 동안 꾸준히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라면 당장 기미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멜라닌 색소 관리에 돌입할 것. 피부 속에 잠재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브라이팅 세럼
기미와 잡티, 다크닝 등 다양한 색소침착에 작용하는 미백 기능 세럼. 8주 후 투명도와 균일도가 개선되고 색소침착이 완화돼 피부 본연의 빛이 살아난다. 40ml, 10만원.



#6 몸 피부 구원하기

여름에는 얼굴 피부만 괴로운 것은 아니다. 드러난 어깨와 목 등 몸도 상처 입기는 마찬가지. 심하면 살갓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잡히는 선반 현상도 일어난다. 그렇다고 차가운 물로 자주 샤워하는 것은 금물. 크림 타입의 자극 없는 보디 클렌저를 이용해 미온수에 5분 이내로 짧게 샤워하고, 진정 성분이 든 보디로션으로 민감한 피부를 다독여줘야 한다. 오이나 알로에 등 천연 식물을 갈거나 잘라 피부에 얹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할 것. 예민해진 피부를 일단 진정시키고 나면 보습 차례다. 몸은 얼굴에 비해 피부에 피지샘이 적고 세포 구조가 조밀해 수분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 상태인 10~20%의 수분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보습 케어를 꾸준히 해야 한다.

#7 몸속에 에너지 채우기

여름은 어느 때보다 기력을 잃기 쉬운 때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이 시점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큰일. 여름에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가을과 겨울을 지낼 체력이 떨어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 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므로 힘들면 적극적으로 기운을 북돋을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자.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로 회복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인삼과, 기를 보하여 원기 회복에 탁월한 녹용 등을 대표적인 여름 보양제로 꼽을 수 있다. 물론 믿음직한 브랜드에서 검증된 재료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다. **1D**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10단계 검증을 통과한 뉴질랜드 적록의 녹용을 비롯해 인삼 열매와 개갑 인삼 씨앗, 홍삼, 천향 등을 더해 인체의 기운을 보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25g×21캡슐, 84만원.



MODEL: LEE SEO YEON, MAKE UP: JAMIE YOON, LEE YOUN SUN,
VIVI AH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한여름 밤의 향기

무더운 여름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신선하고 때로는 포근한 세 가지 향기를 소개한다.

photographer KIM SUN HYE
editor CHOI HYANG JIN



#1 VELVET NIGHT

부드럽고 포근한 향 속에는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센슈얼한 아우라, 헤라 벨벳 나이트 퍼퓸드 샤워젤과 바다로션의 향기, 아이리스, 바이올렛, 머스크가 어우러진 오리엔탈 플로럴 계열의 향으로 컬러를 많이 쓰지 않은 청순하고 섬세한 메이크업에 어울린다.

BEAUTY NOTE

피부는 얇고 투명하게 연출하고, 헤라샤도 듀오 #07 디센트의 핑크 컬러를 눈과 뺨에 연하게 바르고, #08 버블리의 퍼플 컬러를 눈두덩 중앙에 가볍게 터치해 바이올렛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279 무디를 가볍게 발랐다.





#2
ONE NIGHT STAR

'하룻밤만 빛나는 별'이라는 뜻의 에뚜왈 뉘뉴는 고급스러운 관능미가 돋보이는 구말 파리의 향수. 아이리스와 로즈 향에 '립스틱 향기'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노트가 더해져, 여름밤 파우더리하고 은밀한 유혹의 순간을 선사한다.



BEAUTY NOTE
헤라 색도 듀오 #08 버블리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가볍게 펴 바른 뒤, 퍼플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두껍게 바르고 그레데이션해 컷아이클 표현했다. 블랙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깔끔하게 채우고, 마스크라를 아랫눈썹까지 풍성하게 발라 보다 선명한 눈매를 연출했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누드 볼륨 매트 #412 에터켓을 발랐다.



#3 LOVELY GIRL

복숭아, 배, 로즈 머스크 등 과일과 꽃이 어우러진 구알 파리 뽀띠뜨 웨리는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오른 채 수줍은 미소를 띤 사랑스러운 소녀를 연상시키는 향. 핑크빛으로 번진 듯 물들인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에 하늘거리는 시폰 드레스를 입고 뿌려볼 것.



BEAUTY NOTE

헤라 새도 듀오 #09 플로렌스 중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연하게 바르고, 포인트 컬러와 섞어 관자놀이부터 뺨까지 농도를 조절해가며 여러 번 덧발라 사랑스러운 핑크빛 홍조를 연출했다. 입술에는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릿트 #138 베타와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섞어 실제 입술보다 두껍게 발라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다.

MODEL: SEO YU JI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VIVI AH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서머 안티에이징 솔루션

여름내 뜨거운 햇살과 달아오른 열기에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회복해줄 서머 안티에이징 케어.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25ml, 27만원.

#프리미엄한방안티에이징
#눈가피부리프팅
#눈가탄력개선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자칫 급격한 노화를 겪는 연약한 눈가. 설화수의 진설아이크림은 주름을 완화하고 탄탄한 눈매로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아이 케어 크림으로 조밀한 텍스처가 피부를 그물처럼 감싸 눈가를 매끄럽게 만든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적송에서 채취한 성분을 66배 응축한 레드 트레저™와 복령 버섯 성분을 함유해 노화의 징후를 완화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 올려 눈가 피부를 견고하게 다지고 생기 넘치고 또렷한 눈매로 가꿔준다.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대용량 50ml, 40만원.

#30년생차나무뿌리
#마스크속피부사수
#탄력주름개선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작년 6월 출시하며 완판 기록을 연이어 세운 아모레퍼시픽의 라인에이징 코렉터가 여름철 마스크로 인해 무너지기 쉬운 피부 탄력 사수를 위해 대용량을 출시한다. 코렉터는 30년생 차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사포닌 성분으로 뺨 부위 탄력선(14%), 팔자주름(13%), 입꼬리(16%)의 탄력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등 우수한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125ml, 4만2천원.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3만8천원.

#데일리안티에이징
#피부에너지리부팅
#산뜻보송한마무리

헤라 옴므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 & 에멀전

남성용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듀오인 헤라 옴므의 에너지 리부팅 에센스 인 스킨과 에멀전은 피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부장벽을 강화하는 타우린과 남성 피부의 수분손실을 막아주는 카페인 성분을 함유해 피부 분연의 힘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또한 펜타-파워 콤플렉스™를 함유한 에센스 성분이 피지, 모공, 건조, 피부 톤, 주름과 같은 남성 5대 주요 피부고민을 케어해준다. 농밀한 젤 타입 스킨은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며 우유 크림 같은 에멀전은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매끈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두 제품 모두 미백과 주름의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160ml, 4만3천원.

#강력한항산화워터에센스
#급속수분충전
#저자극피부진정



프리메라 미라클 씨드 에센스

서머 안티에이징 케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일. 프리메라의 미라클 씨드 에센스는 안색을 건강하고 맑게 가꿔주는 기능성 워터 에센스로 피부 각질 10층까지 도달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급속 수분 진정을 통해 피부 속부터 맑고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준다. 특히 연꽃수와 특수 가공한 연꽃 씨앗을 결합해 효능 성분을 극대화한 로터스 씨드 액티베이터™를 함유해 피부의 기초 체력을 향상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23g, 8만원.

#고강도안티에이징애플
#순수비타민C30%
#초강력항산화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피부 미백은 물론 피부의 항산화를 돕고 턴오버 케어로 피부결까지 관리해주는 고함량 비타민 애플로, 나이가 탄력과 주름까지 케어해 피부 노화를 전방위적으로 막아주는 안티에이징 멀티플레이어. 순수비타민 C 30%에 석류 추출물, 페룰산 등 중년 피부 건강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더해 보다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그뿐 아니라 특허받은 이중상 제형 기술로 안정화해 산소, 빛, 열 등에 쉽게 산화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25gX30앰플, 15만원.

#갱년기특화프리미엄애플
#면역력증진
#피로해소생기충전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갱년기에는 조금만 소홀해도 몸속 균형이 흐트러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바이탈뷰티의 자음보액은 갱년기 여성의 흐트러진 몸속 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과 홍삼을 함유해 활력을 불어넣는 애플로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초고압에서 홍삼의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가공한 천삼화 홍삼을 함유해 저하되기 쉬운 건강 리듬을 바로잡고 피로를 해소해 활력을 충전하며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휴대하기 편한 앰플 타입으로 깊고 풍부한 맛과 홍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1D**



메이크업과 선글라스 매칭 게임

선글라스마다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따로 있다. 틴트 선글라스부터 최근 떠오른 선 쉴드 선글라스까지, 선글라스 유형별 최적의 메이크업을 제안한다.

LOOK 1. TINTED SUNGLASSES

눈이 비치는 투명한 렌즈에 컬러를 더한 틴트 선글라스는 요즘 힙스터들의 최애템. 틴트 렌즈의 청량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채화처럼 가볍고 투명한 메이크업이 필수다.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25/PA+++, 35ml, 6만5천원.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233 퓨어 타투, 7ml, 3만7천원.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펴 발라 윤기가 도는 가벼운 베이스를 완성한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1 보니 중 핑크빛 베이스 컬러를 아이홀에 바른 뒤, 투명 글로스를 톡톡 두드리며 덧발라 촉촉하게 연출한다.

LIPS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233 퓨어 타투를 입술에 바른 뒤,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퍼뜨려 물들인 듯 맑고 가볍게 표현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SUN SHIELD SUNGLASSES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얼굴에 밀착하는 유선형 디자인에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선 쉴드 선글라스가 돌아왔다. 야외 스포츠와 찰떡궁합인 선글라스답게 햇볕에 그은 듯 건강미 넘치는 태닝 메이크업에 잘 어울린다.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러저, 10g, 4만5천원.
헤라 색도 듀오, #06 라이커블,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252 누드 크림, 3.5g, 3만5천원.

FACE 깨끗하게 정돈한 얼굴에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러저와 볼러셔를 섞어 가볍게 발라 건강한 혈색을 살린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6 라이커블의 베이스 컬러를 넓게 펴 바르고, 포인트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덧바른 뒤 그레데이션으로 연출해 음영을 살린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252 누드 크림을 입술 선을 살려 깔끔하게 바른다.



LOOK 3. BROWN LENS

프레임이 두꺼운 브라운 렌즈 선글라스는 도회적인 느낌을 준다. 이에 어울리게 브론저를 이용해 윤곽을 강조하고 피부와 입술의 윤기를 살려 선글라스의 다소 무거운 느낌을 덜어줄 것.



헤라 페이스 디자인
하이라이터. 10g,
4만5천원.
헤라 섀도 듀오. #11
원섬, 4g, 3만8천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62
스피치리스, 5g,
3만5천원.

FACE 헤라 페이스 디자인 브론저를 얼굴 외곽에 발라 윤곽을 돋우고, 하이라이터를 이마와 T존, 광대뼈에 듬뿍 발라 전체적으로 빛이 감도는 느낌을 살린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11 원섬을 눈두덩이에 듬뿍 발라 트렌디한 컬러감의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LIPS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62 스피치리스를 실제 입술보다 두껍게 여러 번 발라 입술을 도통해 보이게 한다.



LOOK 4. CAT EYE SUNGLASSES

도도한 느낌의 캣아이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소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붉은 립스틱을 더하는 것. 볼드한 레드 립은 무더운 여름에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퍼뜨려 가볍게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8.5g, 6만원.
헤라 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헤라 루즈 홀릭 매트.
#96 스테인드, 3g,
4만원.

FACE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를 얼굴에 가볍게 바른 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이용해 깨끗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EYES 헤라 섀도 듀오 #02 이지고잉의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에 가볍게 바르고, 마스크라를 듬뿍 발라 깔끔한 눈매로 마무리한다.

LIPS 헤라 루즈 홀릭 매트 #96 스테인드를 입술에 고루 바른 뒤, 브러쉬나 면봉으로 입술 선을 스머징 해 자연스럽게 물든 듯한 레드 립을 연출한다.

MODEL: HONG YU KYUNG,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CHA MIN KYUNG(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세안부터 화사하게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말끔히 씻어내는 건 물론, 칙칙한 피부 톤까지 맑게 만드는 클렌저는 없을까? 이런 우리의 바람에 헤라는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이란 스마트한 해법을 내놓았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1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멜라솔브™

헤라의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는 혁신적인 미백 성분인 멜라솔브™가 들어 있어 세안 단계부터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2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셀룰로오스 비드

크리미한 제형 안에 식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비드가 들어 있어 클렌징과 동시에 각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셀룰로오스 비드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떼어낼 수 있으며, 그 결과 세안 후 피부가 한결 매끈하고 환해진다.

3

촉촉하고 산뜻한 마무리감

헤라의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은 올리브 오일에서 얻은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어 세안 후에도 얼굴이 땅기지 않고 촉촉하며, 부드럽고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추천 포인트

POINT 1

클렌징과
동시에
브라이트닝 케어

POINT 2

셀룰로오스 비드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

POINT 3

촉촉한
마무리감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일어 자극 걱정 없이
클렌징을 할 수 있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휘진

“촉촉하게 마무리돼
극건성인
내 피부에 딱!”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이중으로 세안하지 않아도
화장이 말끔하게 지워지고
놀랍도록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듀오
셀룰로오스 비드와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맑고 화사하게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200gx2ea, 5만7천원.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레트로
2중세트, 헤라 선
메이트 레포츠 레트로
2중세트 1950년대부터
이어진 아모레퍼시픽
선케어 부문의
헤리티지를 선 메이트로
살린 레트로 무드의
리미티드 에디션. 각각
50mlx2+40ml(겨분),
7만6천원 /
70mlx2+40ml(겨분),
7만2천원.

오라, 태양의 품으로!

헤라 선 메이트 자외선 차단제가 60년대 레트로 감성을 듬뿍 담은 패키지로 변신했다. 품질은 기본, 50년대부터 이어온 아모레퍼시픽의 선케어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8월 리미티드 헤라 선 메이트 레트로 에디션을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추천 포인트

POINT 1

레트로 감성을 담은 한정판 패키지

POINT 2

16년 연속 선크림 부문 1위의 제품력*

POINT 3

1950년대부터 이어온 선케어 헤리티지

헤라 선 메이트 레트로 에디션

①

1960년대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디자인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1960년대가 연상되는 레트로풍 패키지를 입혀 한정판으로 출시한 헤라 선 메이트. '썬 로-손', '썬 차단 방수 로-손'이란 네이밍에서 MZ 세대에 어필하는 유머까지 느낄 수 있다.

②

70여 년의 선케어 헤리티지

헤라 선 메이트 레트로 에디션의 모티프가 된 것은 1960년대에 출시되었던 선크림인 오스가 파라솔 크림의 포스터로, 영화 <하녀>로 단박에 전설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은심의 당대 광고 사진을 그대로 담았다.

③

16년 연속 국내 선케어 1위의 제품력*

레트로풍 옷을 입은 헤라 선 메이트는 2006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무려 16년 연속 국내 선케어 판매 1위를 차지한 제품. 오랜 기간 사랑받은 제품인 만큼 우수한 자외선 차단 기능과 최고의 사용감을 보장한다.

*칸타월드팩넬 국내 선케어 1위 (2006~2021년 1분기 기준)

“힙한 디자인에 아모레퍼시픽의 헤리티지까지 느낄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레트로풍 디자인이 수많은 자외선 차단제 중 시선을 강탈한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애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독특한 디자인까지 더했으니 바로 소장각.”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소화가 빠른 단백질로 활력을 높여라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맛있고 간편하게, 그리고 속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바이탈뷰티의 **프로틴 파워**가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바이탈뷰티 프로틴 파워

1

프리미엄 균형 단백질

바이탈뷰티의 프로틴 파워는 1일 섭취량 기준 21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근육과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케어해준다. 또한 단백질 종류에 따른 소화 속도와 영양소를 고려하여 동물성 단백질(농축유청단백)과 식물성 단백질(분리대두단백)을 5:5로 배합한 균형 단백질이다.

2

소화가 쉽고 속이 편안한 단백질

나이가 들수록 소화를 돕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가 줄어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렵다. 프로틴 파워는 소화율 고정 아미노산점수 1.0만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당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소화가 용이하다. 또한 부원료로 녹차발효복합효소를 함유하여 섭취 후에도 속이 편안하다.

3

근육과 뼈 건강은 기본,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활력 증진

주원료로 단백질 외에도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활력 비타민 B군(비타민 B6, 판토텐산)과 아연 함유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에너지 증진을 도와준다. 또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을 더해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준다.

추천 포인트

POINT 1

엄선한
프리미엄 단백질

POINT 2

소화가 쉽고
속이 편안한
단백질

POINT 3

8대 기능성
영양 설계

“속이 불편해 단백질 파우더는 먹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다르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찬물에도 잘 녹고 맛있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한 포만 먹어도 든든해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용으로 이상적이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현민



바이탈뷰티 프로틴 파워
소화를 고정 아미노산
점수 1.0만점 단백질만
엄선하였고 부원료로
녹차발효복합효소까지
함유하여 소화가 빠르고
섭취 후에도 속이
편안하다.
518g(18.5g×28포),
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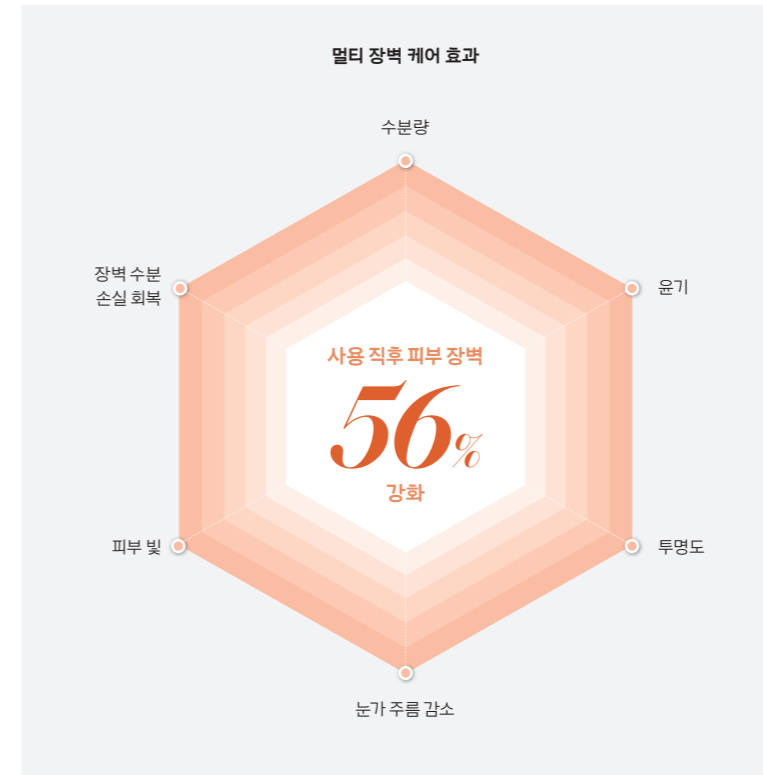
국가대표 퍼스트 에센스, 윤조에센스의 힘

대한민국 여성 중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장대 위 필수품,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 면세점 머스트바이아이템 등 최고의 수식어를 다수 얻은 비결은 바로 혁신적인 품질이다. 방문판매 고객을 위해 120mL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윤조에센스퍼펙팅을 만나보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SURVEY RESULT

테스트로 증명된 효능¹⁾



K-뷰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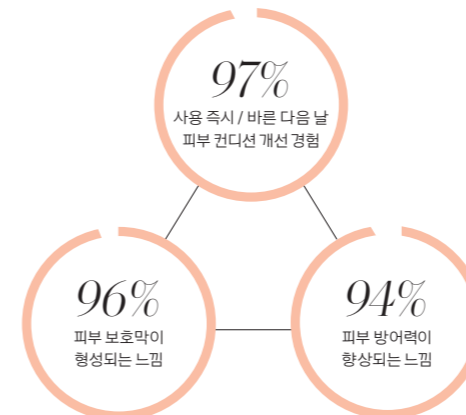
1997년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한국 화장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옥죽, 참작약, 백합, 연꽃, 지황이 다섯 가지 약재에서 추출한 설화수만의 자음단[™] 성분이 피부의 음양 밸런스를 조절해 건조, 탄력과 윤기 저하 등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세안 후 첫 단계에 바르는 퍼스트 에센스 개념이 없던 시절,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스킨케어 루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2010년에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영부인들에게 증정되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에도 국내를 넘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K-뷰티 역사의 한 축이 되었다.

5세대 윤조에센스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한때의 영광에 취해 한자리에 머물렀다면 지금까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그때 최신 과학기술을 사용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여온 윤조에센스는 2020년 설화수의 미에 대한 철학과 피부과학 노하우를 집대성한 역작, 5세대 윤조에센스를 내놓았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5세대의 가장 눈에 띄는 기술력은 유스 마스터 테크놀로지[™]. 설화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벽 안티에이징 기술인 유스 마스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피부에 닿는 순간 피부 속 에너지가 활성화돼 피부 장벽을 안팎에서 보호해준다. 그 결과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되는 것. 또한 설화수 한방과학 연구센터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찾아내 최적의 원료를 황금 비율로 조합한 자음액티베이터[™]가 피부 장벽과 보습막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장벽 관리로 더욱 힘 있게 빛나는 피부로 개선해준다. 게다가 퍼스트 에센스답게 이후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과 만나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와 함께 바르면 피부 방어력, 보호막, 탄탄한 정도 등이 모두 90% 이상 증가해 피부가 한층 더 건강해진다. 설화수 윤조에센스의 효능이야 익히 알고 있을 테니, 활황기를 앞두고 피부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설화수 윤조에센스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가꿔보자.

4주 경험 고객들의 놀라운 기대감²⁾



1) 인체 적용 시험 대상: 만 35~59세 성인 총 32명 / 시험 기간: 2019년 8월 26일~11월 29일 / 시험 기관: P&K 피부임상연구센터(주)
2) 조사 대상: 한국·중국·싱가포르·미주 지역 만 30~40세 여성 총 539명 / 조사 기간: 2019년 9~11월(4주간, HUT) / 조사 기관: REMOTION



SYNERGY ITEM LINE-UP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함께쓰면 더 좋은 시너지 아이템.

강력한 탄력 케어를 위한 환상의 짝꿍

함께 쓰면 더욱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설화수의 에센스 듀오.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뷰티 시크릿 에디션 피부 장벽에 다각도로 작용해 힘 있고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윤조에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세련된 패키지에 120ml 대용량으로 출시해 소장 가치와 실용성을 모두 갖췄다. 120ml, 16만원.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자생력 강한 인삼을 농축한 진세노믹스™ 성분이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높이고, 채우고, 당겨 탄탄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에센스. 50ml, 20만원.

윤조에센스
+
자음생에센스

+
92%
피부 방어력

+
95%
피부 탄탄

+
93%
피부 보호막

조사 대상: 한국·중국·싱가포르·미주 지역 만 30~40세 여성 총 539명/
조사 기간: 9~11월(4주간) / 조사 기관: (주)REMOTION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세운 놀라운 기록

10초에 17개씩
팔리는 설화수의 No.1 에센스¹⁾

9년 연속
부스팅 에센스 **1위** 기록²⁾

24년
부동의 스테디셀러

40만 명
10명 이상 구매 고객³⁾

설화수 최초로 단일 제품 매출
3조원 달성

1) 2018년 1~12월 국내 누계 매출 기준
2) KANTAR 2012~2020년 국내 구매액 기준
3) 1997~2019년 윤조에센스 구매 고객에 대한
아모레퍼시픽 내부 추출 데이터 기준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추천하는 이유

POINT 1

놀라운 누적 판매고가
증명하는 품질

POINT 2

다양한 자극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는
멀티 장벽 케어

POINT 3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높이는
퍼스트 에센스

HOW TO USE

세안 직후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멀티 장벽 케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위별 윤조에센스 활용 팁을 더하면 보다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다.



TIP 1

목주름이 걱정된다면

1. 세안 후 윤조에센스를 손바닥에 덜어 목에 톡톡 두드리며 흡수시킨다. 2.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마사지한다.



TIP 2

얼대야 때문에 숙면하지 못해 피부가 푸석하다면

1. 윤조에센스를 손바닥에 덜어 열이 날 정도로 비빈 후 얼굴을 감싸 잘 스며들게 한다. 2. 심호흡을 하며 입가를 지그시 눌러 긴장을 푼다. 3. 귀 뒤 림프샘 부분을 부드럽게 푼다. 4.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 눈가의 긴장을 완화한다.



TIP 3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면

1. 팔자주름 자리에 번갈아 공기를 불어넣는다. 좌우 3회 반복한다. 2. 윤조에센스를 팔자주름에 덧바른 뒤, 검지로 지그시 누르며 지압한다.



TIP 4

아침에 얼굴이 잘 붓는다면

1. 윤조에센스를 손바닥에 덜어 열이 날 정도로 비빈 후 턱을 지그시 누른다. 2. 피부를 끌어 올리며 뺨으로 이동 후 다시 지그시 누른다. 3. 손끝을 관자놀이를 따라 이마로 이동한 뒤 다시 지그시 누른다.



MODEL: CHOI MYUNG JIN, MAKEUP: JAMIE YOON, LEE YOUN SUN,
CHA MIN KYU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피부가 쑥쑥 좋아지는 쑥 추출물

우리 민족의 기원부터 그 역사를 함께해온 쑥.

향긋한 쑥은 우리 입뿐 아니라 피부까지 만족시킨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SUNG JIN



‘미국의 한 공원 잔디밭에 정체불명의 식물이 돋기 시작했다. 속수무책으로 퍼지는 이 식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중 식물의 정체를 알게 된 한 관리인이 공원 내 식물 채집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자고 했고,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한국인들이 몰려들어 그 ‘쑥’을 모조리 캐 갔다.’ SNS에서 도시 괴담처럼 퍼지고 있는 이야기다. 진위를 떠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한국인의 쑥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일 터. 떡부터 국과 전, 나물까지, 향긋하고 건강에 이로운 쑥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실로 대단하다. 이렇게 향 좋고 맛있는 쑥은 피부에도 그만이다.

봄이 되면 쑥을 캐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쑥은 양지바른 곳 어디에서든 쑥쑥 돋아날 만큼 생명력이 강인하기 때문이다. 원자폭탄 피해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자라난 식물 중 하나가 쑥이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용은 물론 약용으로 사용해온 쑥에는 철분, 칼륨, 갈슘, 인 등의 무기질과 베타카로틴, 리보플래빈, 아스코르브산 등의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다. 이처럼 성분이 다양한 만큼, 오랜 옛날부터 쑥은 습진, 타박상, 부스럼 치료 등의 외용제와 하혈, 통증 진정 등의 내복용으로 다양한 증상에 쓰이며 가정상비약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대체로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당뇨병과 고혈당증의 치료, 피로 해소, 에너지 생성,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리통을 완화하는 효과로 여성에게 특효약으로 인정받아왔다.

이런 쑥은 화장품 성분으로도 훌륭하다. 주목할 것은 항산화 작용.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의 여러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타닌 성분과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보호와 미백 효과가 뛰어난 연구 결과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진정과 항균 효과. 쑥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의 각종 세균을 살균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쑥 성분 화장품이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에 효능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쑥 추출물을 담은 화장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가운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끊임없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상태의 쑥을 최적의 시기에 채취에 사용한다. 쑥 성분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은 프리메라의 오가니언스 워터. 피부 방어에 특효를 보이는 쑥 새싹 추출물과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발아 검은콩 추출물,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어성초 새싹 추출물을 더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정화해 맑고 촉촉한 상태로 정돈해준다.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로 누적 판매액이 6백50억 원을 달성 정도로 베스트셀러다. 쑥이 여성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품도 있다. 프리메라는 일반 피부보다 피부장벽이 얇고 연약한 Y존 케어를 위해 특허 받은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와 세리태 세라마이드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여성청결제를 출시했다. 여성 고유의 산성 보호막을 깨뜨리지 않는 pH 밸런스로 여성에게 적합한 피부 환경을 유지해줘 물놀이나 습한 환경 등에 자극받기 쉬운 여름철 민감한 부위의 건강을 책임져줄 고마운 제품이다. **1**

*락토바실러스 발효용해물



- 1.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끈적이지 않는 맑은 텍스처로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정돈해주는 토너. 180ml, 3만원.
- 2. 프리메라 후리엔 후리 젤**
연약한 Y존도 이제 피부장벽 보호 세정이 필요하다. 쑥, 로즈향으로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200ml, 2만7천원.

이제 프로틴을 챙겨요

벌크업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프로틴 보조제. 하지만 스트레칭만 하는 당신에게도 프로틴은 꼭 필요하다.

editor LEE SUNG JIN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백질 보조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단백질은 바로 지금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필수 영양소이다. 단백질은 수분 다음으로 인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요소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도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백질은 활력을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항체, 호르몬, 효소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의 경우 나이 들수록 뼈의 질량을 더 잘 유지하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낮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이 나타날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단백질은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인은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식습관이 익숙하며, 40대부터 체내 단백질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6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1일 권장량 대비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이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성인 기준 체중 1kg당 1g 정도로, 몸무게가 50kg인 성인 여성이라면 50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늘어나고 근육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조제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비타민이나 유산균처럼 단백질 역시 보조제 형태로 매일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렇듯 중요한 성분인 마크, 시중엔 이미 많은 단백질 보조제가 출시돼 있다. 주목할 것은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단백질 함량,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함유 여부이다. 아모레퍼시픽이 단백질에 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출시된 바이탈뷰티 프로틴 파워 제품은 1일 섭취량 기준 21g의 고품질 균형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엄선하여 선별한 프리미엄 단백질만 함유하였고, 단백질 종류에 따른 소화 속도를 고려하여 동물성 단백질(농축유청단백)과 식물성 단백질(분리대두단백)의 비율을 5:5로 균형되게 배합하였다. 또한 부원료로 녹차 발효복합효소를 더하였고, 소화를 교정 아미노산 점수 1.0만점의 단백질만 함유하여 소화가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유당이 따로 함유되어 있지 않고, 주원료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는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 후에도 속이 편안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BCAAs를 포함하여 필수아미노산 9종을 고르게 함유한 데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함유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도와준다. 비타민 B6, 판토텐산, 아연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활력 증진을 도와주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을 더해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양 서포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스 블렌딩 그레놀 공법을 적용하여 찬물에도 쉽게 녹는 파우더 형태로 운동 전후로 휴대하며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1D**

TIP



바이탈뷰티 프로틴 파워 1일 섭취량 기준 21g의 고품질 단백질과 부원료로 녹차발효복합효소를 함유하여 소화가 쉽고 속이 편안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518g(18.5g×28포), 7만원.



도서관에서 감상하는 문화 오케스트라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책의 숲, 소전서림. 도서관이자 아트 살롱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이곳의 원동력은 황보유미 관장의 폭넓은 관심사와 예술에 대한 식견이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도서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둡고 습한 실내, 오래된 서가 특유의 냄새, 낡은 책상 등이 연상되진 않는가? TV나 건축 관련 책을 보면 해외에는 세련된 건물 가운데 도서관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랜드마크로 꼽을 만한 도서관이 거의 없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이런 아쉬움을 날려줄 공간이 문을 열었다. 바로 소전서림이다.

청담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소전서림은 '흰 벽들로 둘러싸인 책의 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련된 외관이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다. 1층에 위치한 카페 겸 바를 지나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 도서관 메인 홀에 들어서면 절로 감탄사가 새 나온다. 벽면을 따라 책이 빼곡히 꽂혀 있지만 천장이 높고 빛이 환한 덕분에 답답하지 않고, 중앙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놓여 있어 원하는 자리에 앉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 곳곳에 다양한 예술 작품과 독특한 가구가



황보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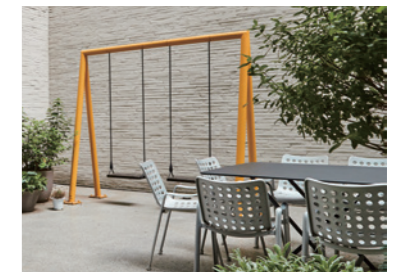
한국에서 국문학과 불문학을 공부하고 파리 10대에서 인포메이션 &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10여 년간 국립발레단,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하다 4년 전 소전서림으로 옮겨와 현재까지 관장을 맡고 있다.

놓여 있어 둘러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사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유료로 운영하는 멤버십 도서관이라는 점. 인문학 강좌와 음악,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할인가에 등록할 수 있는 멤버십 회원의 연회비는 66만원이고, 일일 방문객은 5만원, 5시간 이내라면 3만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이곳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황보유미 관장이 있다.

"오픈하기 전부터 입장료와 멤버십 비용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오픈한 지 1년

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입장료가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책이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책이 들러리로 기능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책방에서 책은 읽지 않고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며 남을 위해 머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즐길 준비가 된 사람들만 오는 공간이 되길 바랐어요. 삶의 근간인 집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장 사이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제3의 장소,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 누릴 수 있는 취향이 깃든 공간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인테리어. 여러 명이 같이 혹은 혼자 혹은 둘이 다양한 형태로 앉아 책을 볼 수 있게 가구를 배치했고, 음악을 틀어둔 공간과 조용한 공간을 분리해 기호에 따라 골라 앉을





엄선해 고른 책들은 물론 예술 작품과 안락한 리딩 체어까지. 소전서림에는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황보유미 관장의 고민이 곳곳에 녹아 있다.



수 있게 했다. 각 공간에 맞는 작품들도 흥미롭다. 이런 다양한 볼거리와 세심한 배려는 황보유미 관장의 문화적 식견에서 기인한다. "뭇든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작업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음악 잡지 <객석>의 파리 통신원으로 파리 오페라단 공연의 백스테이지를 취재하려 갔었는데, 거기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요. 무대 뒤에 무대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오직 가발만 있는 스튜디오, 모자나 단추만을 위한 스태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지 눈으로 확인한 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은 물론이고 우수한 스태프들, 예술 작품, 건축, 가구 등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이곳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덕분에 소전서림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반응도 좋다. 아마도 소전서림의 쾌적한 분위기, 미술관에 온 듯한 예술 작품들, 소음에서 벗어난 공간 등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

일 터. 이는 효율성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심한 황보유미 관장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실제로 외국에 살다 귀국한 뒤 이곳을 찾은 한 고객의 평가가 소전서림의 위상을 보여준다. "내가 살던 곳은 공공 도서관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 도서관은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서울에는 그런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 그런데 소전서림이 생겨 참 다행스럽다." 한 달에 한 번 수서 회의를 열어 양서를 골라 들어놓는 것은 물론, '문학더함', '예술더함', '철학더함'이라는 이름으로 세 분야의 강연 프로그램 역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단체 서거 700주년을 맞아 개최한 단테의 문학, 철학, 예술에 대한 강연은 꽤 인기가 좋다. 특히 7월부터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진행하는 '더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강좌 신청 접수 4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소전서림은 황보유미 관장의 다양한 관심사와 예술에 대한 장르를 뛰어넘는 폭넓은 식견으로 채워져 있는 문학 도서관이자 복합 문화 예술



살롱이지만, 그 근간에는 황보 관장이 어릴 때부터 기른 습관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 전집을 많이 사다주신 부모님의 영향과 늘 읽서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라를 펼치던 그의 성향이 잘 맞아 이제 독서는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디지털 매체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에게 정보를 주는 가장 익숙한 매체는 책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4만 권의 책 속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책과 공간, 문화를 연주한다. "소전서림을 준비하며 서울이라는 도시의 높은 문화적·인문학적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곳, 심지어 나만의 시간이 문화의 키워드가 된 요즘 동시대적인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곳을 두고 한 매체에서 '공간 구독의 시대'라는 표현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소전서림을 필두로 앞으로 여가 생활, 구독 문화가 좀 더 다양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바람대로 더 많은 취향을 발견하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날을 기대해본다. **ID**

TIP

황보유미가 추천하는 여름 필독서 3



헤르만 헤세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평생 정원을 가꾸며 산 작가 헤르만 헤세가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원을 가꾸는 실질적인 기술이 아니라 한 문학가가 어떻게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윌리엄 모리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
 시인, 작가, 화가, 디자이너, 최초의 디자인 회사 경영자... 이처럼 다양한 타이틀을 지닌 윌리엄 모리스가 자신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하는 산문집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정유정
<완전한 행복>
 정유정 작가의 신간 소설. 등장인물이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전개가 펼쳐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완전한 행복은 무엇인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책. 스텔러로서도 탁월하다.



#고강도안티에이징애플
#순수비타민C30
#피부자생력강화



@aromieunsun

안티에이징에 좋다는 석류 추출물에 비타민 C와 E가 듬뿍 들어 있는 석류를 담은 핑크빛 레드 애플. 비타민 애플을 다양하게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끈득하고 탄력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애플은 처음이에요. 여름철 자극받은 피부를 위해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면 더 좋아요.



@gggap1214

비타민 성분이 따갑다는 편견을 없애준 자극 없고 순한 비타민 애플이에요. 여름철엔 피부가 칙칙해져 관리가 필요한데 미백, 탄력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 아이오펜 에이스비타민 C30

피부 노화를 방지를 방지하고 유해 산소에 맞서 세포를 보호하는 고향량 비타민 애플. 안정화된 순수 비타민 C 30%에 석류 추출물, 페룰산 등 항산화 성분을 더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23g, 8만원.

생생한 제품 평가

아이오펜 에이스비타민 C30을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ryun1013

여름이니까 비타민 C 제품 하나 추가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고향량에 레드빛이라 신기했어요. 개봉하자마자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고 열심히 쓰는 중인데 무건지 않아 여름에 쓰기 좋아요. 피부아, 맑아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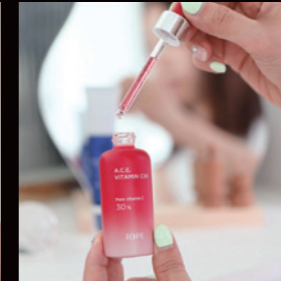
@soulandlatte

아이오펜 에이스비타민 C30으로 지친 피부 달래보기. 피부 항산화와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어 요즘처럼 피부가 생기를 잃는 계절에 딱 좋아요.



@ines_ej

요즘 주름도 많아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슬펐는데, 피부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과 비타민을 듬뿍 챙기면서 관리해요. 처음 사용할 때 탄산처럼 톡 쏘는 느낌이 들고 시원하게 피부에 착 붙네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라도 이 애플, 꼭 챙겨야겠어요.



@rose9old

얼굴에 바르고 잠시 후면 피부가 진짜 팽팽해지고, 고급스러운 빛이 출출하게 차올라요. 무광 패키지와 스포이트는 그림감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마스크 쓴다는 핑계로 피부에 신경 못 쓰 요즘 아이오펜 에이스비타민 애플로 피부 자생력을 높일래요. 미래의 건강한 40대 피부를 위해.



@pinkmint79

요즘 청량한 빨간 안티에이징 애플로 항산화 케어와 동시에 고강도 안티에이징 관리 중. 세안 후 토너로 피뽕결을 정리한 뒤 스포이트로 얼굴에 톡톡 떨어뜨려 바르면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 만들어준다니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발라야지.



@iam_maldi

딱 한 번만 발라도 피부가 굉장히 끈득하고 탄탄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광광한 피부 탄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뒤 스포이트로 얼굴에 톡톡 떨어뜨려 바르면 탄력 있고 광채 나는 피부가 마음에 쏙 들어요.



@wajeongi

안티에이징의 시작, 고향량 비타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를 수 있어요. 순수 비타민 C가 최대 함량으로 들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지만 산소, 빛, 열 등에 쉽게 산화되는 순수비타민 C를 안정화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처음 효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wisdom018

순수비타민 C 30%의 최대 함량으로 기미, 잡티부터 탄력 저하, 주름 고민까지 해결해줘요. 석류 추출물을 함유해 항산화 기능까지 있답니다. 하루하루 피부 시간을 붙잡고 싶은 요즘 안티에이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PLACE 8월의 핫 플레이스



RECOMMEND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
국내산 단호박을 듬뿍 넣어 식감을 살린 파운드케이크. 단호박이 가장 맛있는 6~9월에는 단맛이 배가된다.



양펠파운드

비건 파운드케이크를 맛볼 수 있는 카페 '양펠파운드'는 연남동 연트럴파크 근처에 위치해 있다. '양펠'은 ant hell, 즉 개미지옥을 프랑스어 식으로 표기해 지은 이름이다. 이곳의 파운드케이크를 한번 맛보면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걸 재치 있게 표현했다. 천장이 높고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맑은 날에는 그늘 밑 야외 테라스를 찾는 사람도 많다. 비건 파운드 케이크는 단호박, 검은깨, 당근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유를 베이스로 만들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음료 역시 두유로 변경해 비건식으로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등교로41길 10
영업시간 월요일 13:00~22:00, 화~일요일 11:00~22:00 문의 @anthell_pound



내일을 위한 디저트

우유, 버터, 달걀 없이 만든 디저트에서 맛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달콤함.

editor GO YEONG JIN
photographer LEE SEOK YEONG

이뮤 베이커리

지난해 연말 합정동에 문을 연 '이뮤 베이커리'. 모든 베이커리류와 음료에 정제 밀가루와 설탕, 버터, 우유, 달걀, 보존료를 넣지 않아 비건인 동시에 글루텐 프리 옵션까지 충족한다. 건강한 재료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비주얼과 맛. 시그니처인 제주 당근 케이크와 초콜릿 머드 케이크, 유기농 허브스커스 라임 에이드 등 맛은 물론이고 예쁜 색깔까지 살린 비건 디저트를 자랑한다. '이뮤'는 면역력을 뜻하는 'immunity'를 줄인 말로, 건강한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고자 하는 이곳의 목표를 담았다. 비건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와 일대일 창업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비건 브런치 메뉴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6길 57-13 2층 202호
영업시간 금~토요일 13:00~20:00
문의 @immu_bake_shop



RECOMMEND
제주 당근 케이크
당도 높은 제주산 당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국내산 통밀을 사용했다. 견과류를 베이스로 한 비건 크림을 올려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쿠소이

비건을 위한 식음 공간. 버터와 우유 대신 직접 만든 두유와 두부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소이프레소'는 전라남도 함평에서 난 콩으로 만든 두유에 단호박, 멜론, 딸기 등 다양한 맛을 더한 음료다. 소포제를 쓰지 않고 간수만으로 굳기를 조절 한 두부는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호밀 빵에 두부로 만든 크림과 비건 바질 페스토, 토마토 절임을 곁들여 먹는 '쿠프레제'는 브런치 라인 중 꾸준히 인기 있는 메뉴. 재오픈할 예정이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한림로3길 33 지하 1층(옥수점)
영업시간 마정(인스타그램에 공지 예정)
문의 @kusoy.official



RECOMMEND
두부 바나나 푸딩
쿠소이의 두부와 두유로 만든 부드러운 크림에 바나나와 직접 구운 쿠기, 고소한 비건 크림을 얹었다.



RECOMMEND
자두 치즈 케이크
병아리콩, 생캐슈너트, 애플 사이더 비니거, 레몬으로 치즈 케이크의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 울여름에는 대석자두로 만든 푸레를 더했다.

평상시

본점인 암사점에 이어 지난해 2월 망원동에 2호점을 오픈한 카페 '평상시'.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소비를 지향한다. 매달 제철 과일을 활용해 새로운 비건 디저트 메뉴로 정비하는 것이 특징. 과일과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케이크에는 버터나 유크림 대신 견과류나 코코넛 크림으로 만든 프로스팅을 올린다. 아이스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을 채식으로 구현한 레시피도 개발 중이다. 지구와 공생하려는 마음은 실내 인테리어에도 녹아 있다. 곳곳에 직접 분갈이를 한 식물을 들여놓고, 테이블과 의자는 원목보다 목재를 적게 쓰는 합판을 주로 사용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23 2층
영업시간 화~일요일 12:00~19:00(월요일 휴업)
문의 @pyeongsangshi



오베르트

'오베르트'는 식물성 재료만으로 도넛을 만든다. 프랑스로 초록을 뜻하는 '베르트' 앞에 링 도넛을 연상케 하는 '이오'를 붙여 만든 상호로 공간의 특성을 표현했다. '비건을 위한 길티 플래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비건도 얼마든지 미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블 에스프레소 샷을 넣은 '티라미수 글레이즈드', 유기농 말차와 아몬드 크림으로 만든 '말차 글레이즈드 & 크림블', 수제 땅콩 크림과 상큼한 베리 잼을 활용한 '피넛버터 & 베리잼' 등 맛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10길 34
영업시간 월~금요일 08:00~재료 소진시, 토요일 11:00~재료 소진시(일요일 휴업)
문의 @overtedonuts



RECOMMEND
얼그레이 글레이즈드 & 아몬드 크림
은은하게 퍼지는 얼그레이 향이 매력적인 도넛. 달지 않고 담백한 아몬드 크림 덕에 뒷맛까지 깔끔하다. 아몬드 크런치를 올려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아름다움이 나를 멀리한다

작가 한정현이 <향장>에 보내온 아름다움에 관한 에세이.

세상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기준과 내가 스스로 정해가는 아름다움의 정의에 대하여.

writer HAN JUNG HYUN

스물세 살 무렵, 은희경 작가의 <아름다움이 나를 멀리한다>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다. 이 소설에서 화자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만두를 먹을 때 만두피까지 벗겨내고 먹는 사람이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한꺼번에 먹는 건 다이어트에 최악의 수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가혹할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건 그가 세상의 기준에서 뚱뚱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기준'이 확고한 세상에서 분투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난데없이 눈물을 흘렸다. 물론 그것은 공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나쁜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라면 대부분 그 소설을 읽으며 깊이 공감했을 것이다.

나는 늘 표준 몸무게에 미달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만족감이 드는 몸매를 가져본 적 없는 게 또 나였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나와 다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선으로 그린 듯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한국인에게 그렇게 마른 몸을 갖는 건 무리다. 그러나 나 또한 이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처음 근육운동을 시작할 때에야 겨우 알게 되었다. 그 이전의 나는 항상 나를 화면 속 그들과 비교했다. 물론 나의 몸을 비난한 건 나 자신만 아니었다. "너 또 먹고 있니?" "아이고, 네 팔뚝 좀 봐." 반쯤은 장난이었을 말이지만, 사람들의 이런 말은 내 몸을 스스로 싫어하게 만들었고 자주 부정하게 했다. 어느새 내 기준도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움'에 맞춰졌다. 그리고 내가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 앞서 말했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근육운동을 시작한 때였다. 여자들은 무거운 걸 못 든다는 어떤 남자 회원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근육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팔과 허벅지에 근육이 붙는 게 조금 못마땅하기도 했다. 그건 내가 아는 아름다운 여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무거운 거 못 들어서 달리기만 한다는 그의 말과 달리 나는 점차 75kg의 중량을 들고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초도 버티지 못하던 매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하느라 식단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몸무게는 줄었고 사이즈도 줄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 겨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을 꾸준히 해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 때문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거울 속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이어트 약이 넘쳐나고, 여성들의 외모를 지적하는

데 거침없는 한국 사회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점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텔레비전 속 누군가의 모습과 내 몸을 비교하면서 몇 시간씩 녹초가 되도록 걷지도 않고 밥을 거르지도 않는다. 내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거울에 비친 왜곡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이니 말이다.

이 글을 쓰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서 내가 맨 처음 아름다움에 생각했던 건 연예인지도 떠올려보았다. 아마도 여섯 살 때 겨울, 메리헨 동화 <착한 마녀>를 읽은 직후였던 것 같다. 메리헨 동화는 동화라는 명칭과 달리 삽화 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장편소설 시리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글로 본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맞는 말이다. 여섯 살 겨울, 글로 표현된 주인공인 '꼬마 마녀'를 보면서 나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착한 마녀로 표현된 이 꼬마 마녀는 마녀 세계에서 서열 꼴지임에도 선배 마녀들을 혼내준다. 말이 선배 마녀지, 이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단지 자신들보다 서열이 낮다는 이유로 꼬마 마녀에게 온갖 잡일을 시키는 존재들이다. 선배 마녀들이 보기에도 이 꼬마 마녀는 되바라진 못된 마녀겠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안다, 꼬마 마녀야말로 진정한 착한 마녀라는 걸 말이다. 그 때문일까,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나는 어디서 주워들은 게 분명한, '아름다워'라는 말을 중얼거렸다(예상하건대 당시 엄마와 함께 보았던 드라마의 대사가 아닐까 싶다). 이 경험은 이후에 사랑을 선택해 철로 위로 몸을 던지는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를 만날 때도, 끝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귀족 신분을 버리는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을 볼 때도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최근에는 남성성을 부각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굳이 이러한 남성성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춤선에 걸맞은 안무와 메이크업과 의상을 선보인 태민의 'MOVE' 무대를 보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몰랐던 시절의 나에게 아름다움이란 '외모'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마음과 같은 거였을 것이다. ①

한정현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와 장편소설 <줄리아나 도쿄>가 있다. 제43회 오늘의작가상, 제12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8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5



4



2



3

1.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레트로
2종세트, 헤라 선 메이트 레포츠 레트로
2종세트 배우 이은심의 과거 광고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1950년대부터 이어진 아모레퍼시픽 선케어 부문의 헤리티지와 트렌디한 레트로 무드를 동시에 담은 헤라 선 메이트 리미티드 에디션. 각각 50mlx2+40ml(겨분), 7만6천원 / 70mlx2+40ml(겨분) 7만2천원.
2. 바이탈뷰티 프로틴 파워 소화를 교정 아미노산 점수 1.0 만점의 단백질만을 엄선해 담고 부원료로 녹차발효복합효소까지 함유해 소화가 잘되고 섭취 후 속이 편안하다. 518g(18.5g×28포), 7만원.
3. 헤라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스킨케어 마진 얼굴에 가볍게 바른면 매끈하고 보습보송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 8.5g, 6만원.
4. 아모레퍼시픽 라인에이징 코렉터 지난해 6월에 출시해 완판을 기록한 제품으로 여름철 단력 사수를 위해 대응량으로 출시했다. 50ml, 40만원.
5.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젤 연약한 Y존도 이제 피부 장벽 보호 세정이 필요하다. 쉑, 로즈향으로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200ml, 2만7천원.

